



「 가치있는 스포츠, 같이 하는 인권 존중 」

보도자료



(0625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78 야구회관 4층 ☎ 02-572-8411, Fax. 02-572-7041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페이지
------	-----------------------	--------

배포일시	2023.04.02.(일)	담당부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팀(야구)
------	----------------	------	--------------------

KBSA 2023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부터 로봇심판 도입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이종훈, KBSA)는 2023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부터 자동 볼·스트라이크 시스템(로봇심판)을 전격 도입한다. 협회는 이번 로봇심판 도입으로 스포츠 4대악인 입시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공정한 심판 판정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로봇심판의 성능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지난 3월 28일(화)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시연회를 진행하였으며, 현장 지도자와 KBSA 심판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하고 원활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로봇심판의 스트라이크 기준은 투구한 공이 홈플레이트 앞쪽의 앞면 스트라이크존과 홈플레이트 뒤쪽 뒷면 스트라이크존을 모두 통과해야 스트라이크로 판정된다. 협회는 시연회 의견 반영 결과에 따라 KBO 퓨처스리그에서 설정된 로봇심판의 스트라이크존 보다 좌우 폭이 공 하나 정도 넓어지고 고교 선수들의 평균 신장을 고려하여 스트라이크존 높이는 조금 낮아졌다. 또한 사이드암 투수들의 공 궤적을 반영하여 홈플레이트 뒷면 스트라이크존은 앞면보다 공 반개 정도 넓게 운영될 예정이다.



KBSA 고교야구 로봇심판 스트라이크 기준 *모든 타자에 동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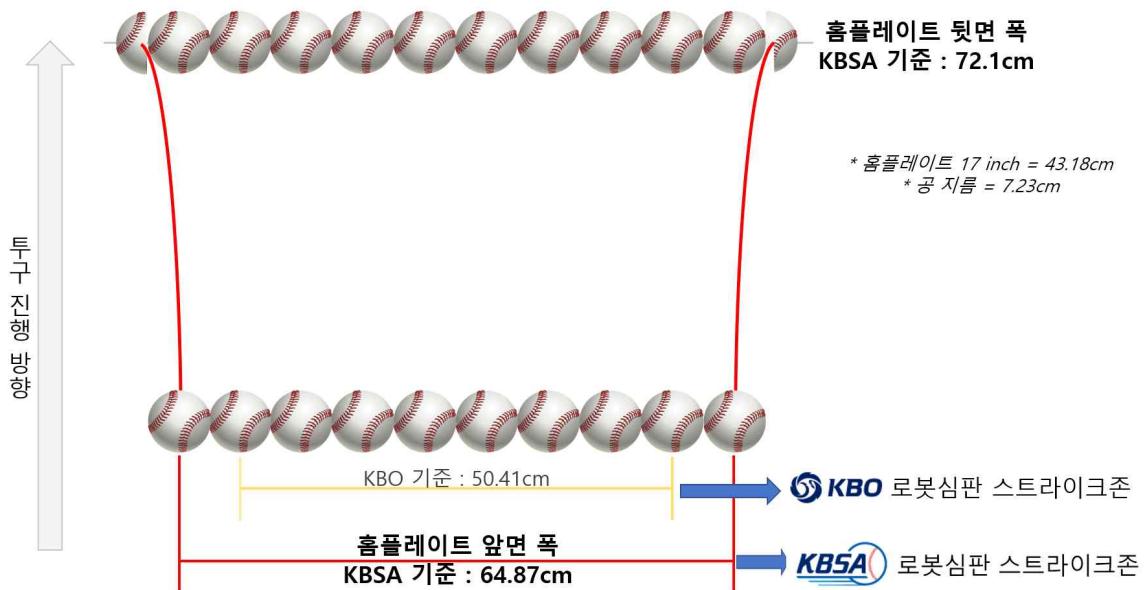
	KBO 2022 기준	KBSA 기준
평균 신장	182.83	176.58
평균 상단	104.92	101.31
평균 하단	46.49	42.88
상하 폭	58.43	58.43

* 평균 신장 차이를 고려하여 전년도 KBO 타자 평균 기준보다
공 반개 정도 낮춘 기준 적용
* 평균 상하단 폭 58.43cm 유지

* 홈플레이트 뒷면에서 한번 더 판정
* 좌우 공 반 개씩을 더 넓혀서 홈/변화구에 대한 판정 완화
* 앞면과 뒷면 모두 스쳐야 스트라이크



KBSA 고교야구 로봇심판 좌우 스트라이크 기준 *앞면과 뒷면 모두 스쳐야 스트라이크



로봇심판은 2023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이 열리는 4월 3일(월)부터 시행하며, 도입 첫 날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시험 운영된다. 시험 운영 시에는 주심이 볼·스트라이크 판정하며 양 팀 감독은 볼·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하여 주심을 통해 3회까지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6강전 경기 이틀째부터 로봇심판이 전격 도입되어 로봇심판의 판정이 최종 판정으로 인정되며 공식야구규칙에 의거하여 볼·스트라이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로봇심판의 오류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복구를 시도하며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주심이 볼·스트라이크 판정하는 대회 규정을 마련했다.

이종훈 회장은 로봇심판 도입에 대해 "고교팀들에게 공정한 심판 판정과 동일한 조건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로봇심판을 도입함으로써 경기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입시비리 예방과 승부조작 방지와 함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